

금요일엔 자넌자 《자본을 넘어선 자본》 9장

범위 : 이윤율의 논리와 자본주의[1] (397~439)

자본3권은 '자본주의적 생산의 총과정'을 다룬다

== (유통의 문제를 고려한 생산의 과정)

== (생산과정과 유통과정이 결합되어 진행되는 과정 전체)

자본1권		자본3권
잉여가치 개념	==	이윤 개념
잉여가치율	==	이윤율
가변자본과 잉여가치의 관계	==	비용과 이윤의 관계
가치	==	가격 ~ 생산가격 (유통, 경쟁, 평균이윤율 등 고려)

- 이윤 == (확장) ==> 평균이윤
- 자본 == (축적) ==> 이윤율의 하락 <- 리카도를 비롯한 정치경제학자들의 수수께끼

1. 이윤율과 평균화

1) 이윤율 평균화와 생산가격

- **이윤율** : 총투하자본에 대한 잉여가치의 비율 (p.399), 잉여가치를 총투하자본(불변자본[재료]과 가변자본[노동력])으로 나눈 것.
 - 각 기업들마다 이윤율이 다르다.(20%,30%,40% ... 등)
 - 이윤율이 낮은 분야에 있는 자본가는 바보가 아니다. 이윤율이 높은 분야로 몰려들 것이다.
 - **이윤율 평균화** :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지점에서 가격을 형성하는 시장처럼 상이한 이윤율이 자본의 이동에 따라 동등하게 평균화된다.

```
while(true){ // HR:해리, NR:노루
  HR.공급과잉 -> HR.상품가격하락 -> HR.이윤율하락 -> NR.자본투입;
  NR.공급과잉 -> NR.상품가격하락 -> NR.이윤율하락 -> HR.자본투입;
  if(HR.이윤율 == NR.이윤율) break;
}
```

- **이윤율(p')** = 잉여가치(s) / 상품의 비용가격(c+v)
 - $p' = s / (c+v)$
 - ex) 5% = 5 / 100
- **평균이윤율(r)** = 이윤율 평균화에 따라 성립된 이윤율
 - $r = \text{sum}(s) / \text{count}(s)$
 - 평균이윤(mean(p)) / 비용가격(c+v)

- $r = \text{mean}(p) / (c+v)$
- ex) $22\% = (5\%+15\%+20\%+30\%+40\%) / 5$
- **평균이윤**($\text{mean}(p)$) = 투자한 비용($c+v$) * 평균이윤율(r)
 - $\text{mean}(p) = (c+v) * r$
 - ex) $22 = 100 * 22\%$
- **판매가격, 생산가격**(P) = 상품의 비용가격($c+v$) + 평균이윤($\text{mean}(p)$)
 - $P = (c+v) + \text{mean}(p) = (c+v) * (1+r)$
 - ex) $122 = 100 + 22$

2) 가치와 가격의 괴리

- **가치와 가격의 괴리** : 각각의 자본가가 생산한 잉여가치와 평균이윤은 같지 않기 때문에 각각의 상품의 가치와 가격 역시 같지 않다.(p.401 P-W)
 - 상품의 가치가 그것을 생산하기 위해 투여된 노동시간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는 리카도의 명제와 상충.
 - 맑스의 표를 '총잉여가치 = 총이윤'이라 주장하기에는 강제로 맞춰진 숫자라는 점을 상기할 것. 내재적 비판.

3) 가치와 가격의 '일치'

- **상품의 가치** :
 - $W = c + v + s$
- **생산 가격** :
 - $P = c' + w + \text{mean}(p)$ [c' :불변자본의 가격]
 - 잉여가치가 평균이윤으로 대체
 - 요소들이 가치가 아니라 화폐로 표시된 '가격'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 **노동의 화폐적 표현**(m) = 화폐로 표시된 임금 및 이윤($w+p$) / 순생산물 가치($v+s$)
 - $m = (w+p) / (v+s)$
 - 노동이 생산한 가치생산물 총액과 순생산물(부가가치) 가격 총액의 비율
- **총계일치 명제** :
 - (1) 공식 - 순생산물의 가치총액이 순생산물의 가격 총액과 일치
 - $w+p = m(v+s) = mv+ms$
 - 화폐로 표시된 가변자본(mv)이란 바로 임금(w)이다. $w = mv$
 - 불변자본의 가격(c')은 불변자본의 가치(c)와 m 의 곱으로 표시하면 된다. $c' = mc$
 - (3)공식이지만 여기서 이 식이 없으면 치환이 안됨. $p = ms$
 - (2) 공식 - 총생산가격이 화폐로 표시된 총생산물의 가치와 일치한다.
 - $P = c' + w + p = mc + mv + ms = m(c+v+s)$
 - 개별상품이나 개별자본가의 경우 상품의 가치와 가격은 일치하지 않지만, 사회적 총량 수준에서 상품의 가치와 상품의 생산가격은 일치한다는 것이다.
 - (3) 공식 - 총이윤이 화폐로 표시된 잉여가치 총량과 일치
 - $p = ms$
 - (1) 공식 - 순생산물의 가치총액이 순생산물의 가격총액과 일치한다는 것.
 - (2) 공식 - 상품의 총가치와 총생산가격이 일치한다는 것.

(3) 공식 - 총잉여가치와 총이윤이 일치한다는 것.

=> 가치로 표시된 총계와 가격으로 표시된 총계가 일치함을 보여줌.

• 전형문제 :

- 가치총액과 가격총액이 일치한다는 노동가치론의 명제를, 그 두 식이 모순됨을 보여줌으로써 반박하려 했던 것.
- 폴리와 뒤메닐은 각각 독립적으로 노동가치론을 식 (1)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으로써 정의상 성립한다는 것을 보여줌.
- 노동가치론 안에 있다고 간주되던 모순을 해결한 것이지 노동가치론을 입증한 것은 아니다. 노동가치론의 가정하에서 두 가지 총계일치 명제가 동시에 성립함을 증명한 것이지 **노동가치론의 가정을 증명한 것은 아니다**.
- 맑스가 노동가치론자임을 증명했다고 생각하는 것도 진실과 거리가 멀다.

4) 평균화의 논리

- 자본의 이동에 따른 수요-공급의 변화가 이윤율 평균화를 야기한다. 이러한 자본의 이동능력이 크면 클수록, 그리고 노동력의 이동가능성이 크면 클수록 더욱 빨리 달성된다.
- 맑스의 **인간관계** 지적
 - 자본가와 노동자 간의 관계 : 이윤율을 높이기 위한 가변자본(노동)의 착취. 전체로 보면 총노동의 적극적인 착취에 속한다.
 - 자본가들 사이의 관계 : 이윤율 평균화를 경쟁의 형태로 진행하는 ‘자본가들간의 투쟁’
- 평균화의 **균형개념**
 - 이윤율 평균화 : 자본 이동에 의한 이윤율의 균형
 - 수요과 공급의 균형 : 이윤율 평균화를 가능토록 함
 - 가치론적 균형 : 핵심 척도, 총가치 = 총생산가격
- 균형개념의 **전제**
 - 자본과 노동력의 이동이 자유롭다는 가정 :
 - 자본, 노동력 완전경쟁을 전제
 - 시장정보의 가정 :
 - 자본이든 노동력이든 이윤율이나 임금율에 관련된 모든 시장정보를 갖는다.
 - 합리적 선택의 가정 :
 - 자본이든 노동력이든 좀더 높은 이윤율 내지 임금률을 선택하여 행동한다.
 - 접근가능성의 가정 :
 - 기술이나 노동생산성에 모든 자본이나 노동자가 접근할 수 있다.
 - 철수가능성의 가정 :
 - 다른 부문으로 이동하기 위해 자본을 철수하는 경우 투자한 비용이 보전된다.

5) 평균화와 정치경제학 비판

현실적 조건의 추상이란 어떠한 이론적 구성물에서도 피할 수 없는 것.

그러한 가정이 현실적인가 여부를 따지는 게 아니라 그것이 정말 **맑스 자신의 비판적 문제설정에 부합하는 것인가를 따지는 것**.

(1)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

- 상대적 과잉인구, 과잉노동력, 취업할 수 없는 노동자, 산업예비군, 노동시장의 분절, 기피직종 증가 등 사회 질병이나 사라질 것이 아니라 자본축적 그 자체이자 반대로 늘어날 현상들.
- 맑스 자신이 그러한 비판적 작업을 통해서 찾아낸 이론에 비추어 매우 부적절하고 부당한 가정임.

(2)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

- 고정자본의 완전하지 않은 소모, 떠나는 자본가의 손실, 구매하는 자본가의 이득, 철수도 구매도 불가능한 현상, 자본축적에 따라 고정자본 비율 증가 등 자본의 이동은 자본축적이 진행됨에 따라 더욱더 곤란해진다.
- 높은 이윤율의 분야는 알리려하지 않는다. 독점적 소유욕구, 특허권과 지적소유권 상표권 등의 법적 형식
- 맑스의 정치경제학 비판의 기획이나, 그가 자본주의 생산양식이나 그것의 축적에 대한 연구에서 찾아낸 법칙들과 부합하지 않는다.

(3) 자본의 물리학?

- 평균화는 기체를 일차적 모델로 하여 입자들의 이동과 그에 따른 엔트로피의 증가를 통해 균형상태를 정의하는 19세기 열역학의 균형개념과 동형적이다. <- 그러나 자본과 노동력은 결코 기체로 비유할 수 없다. 소유란 자유로운 흐름을 제한하는 것. 노동은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것.
- 이윤율 평균화란 맑스가 말한 대로 단순한 "이념적인(현실로는 존재하지 않는) 평균"에 지나지 않는다.

(4) 자본화와 탈-평균화

- 새로운 자본의 투입의 경우 이윤율이 높은 분야에 진입하는 점은 타당하지만, 완전경쟁이나 자유로운 이동 가능성은 자본주의 어디에도 없으며, 수많은 장벽과 방해요소들이 있기에 평균화라는 개념은 반복하여 연기된다. **평균화란 일종의 경향을, 하지만 그에 반하는 수많은 요인들의 합법칙적 발생에 의해 무한히 연기되는 경향을 표시할 뿐이다.**
- 균형의 가정을 제거할 때에만 평균화는 자본의 운동을 포착하는 하나의 요인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균형이나 평균화 운동을 가정하지 않고, 이윤이나 자본의 운동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 -> 지대론

2. 지대론과 포획의 논리

1) 봉건적 지대와 자본주의적 지대

- 지대 : 토지나 건물 등을 임차한 대가로 토지의 소유자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재화(좁은 의미)
- 봉건적 지대 :
 - 봉건적 관계에서 농민은 토지에 부속된 존재였고, 토지에 메인존재,
 - 경제외적 강제 - 계약에 의한 것이 아니라 신분때문에, 비경제적 예속에 따라
 - 영주 내지 왕의 소유인 토지에 딸린 농민들이 경작을 해서 그 생산물의 일부를 바침
 - 이중소유권
 - 소유자[왕,영주]는 농민들이 경작한 생산물을 받는 대신 그들의 경작권을 인정
 - 토지에 대한 소유권[영주,왕]과 경작권(이용권,점유권)[토지에 딸린 농민]이 동시에 존재
 - 소유자는 먹고살기 위한 최소한을 초과하는 모든 부분을 영유 == 모든 잉여노동은 소유자 소유
- 자본주의적 지대 :
 - 토지소유자로부터 신분적으로 자유로운 자본가들이 이윤 내지 초과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토지를 사용하여 얻은 이득의 일부를 소유자에게 계약에 따라 지불하는 것.
 - 소유자는 일정한 이윤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영유

- 단순히 토지임차를 넘어서 공장이나 건물, 상표, 기술사용권, 지적사용권 등 자본가들이 이윤을 위해 임차하여 사용하는 모든 것에 적용됨.

2) 차액지대와 절대지대

- **차액지대 :**
 - 자연력의 이용으로 인해, 그것 없이 생산 할 수 있는 가치에 추가되는 초과이윤
 - 각각의 토지 산출량과 최열등지의 산출량과의 차액 (**토지상호간의 직접적 비교**)
 - ex) 동일 면적, 동일 생산수단과 노동력 -> 토지의 비옥도로 인해 상이한 토지(p.424), 폭포의 수력, 장사 잘 되는 길목의 건물
- **절대지대 :**
 - 토지를 독점적으로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근거로 영유하는 지대
 - ex) 지대의 절대적 권리로서의 토지 값
- 차액지대로 표시되는 초과이윤은 이윤율의 평균화 과정에 들어가지 않는다.
- 토지는 소유자나 사용자는 바뀔 수 있을지언정 새로 늘릴 순 없기에 새로운 진입을 허용하기 어렵다.

3) 지대론, 혹은 포획의 논리

(1) 초과이윤과 독점이윤

- 평균화가 비현실적 가정 위에 기초하는 반면, 지대론은 독점의 가정 위에서 평균화과정에서 벗어나는 초과이윤이 발생하는 양상을 다룸. => 평균화의 논리와 대비되는 초과이윤의 논리를 규명한다.
- 맑스는 어떤 생산분야에서 가장 좋은 조건에서 생산하는 사람들의 경우에서 보이듯이, 지대처럼 자연적 조건에서만 초과이윤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시장가치**에서도 그것(**초과이윤**)이 발생한다고 지적한다. 이는 평균화와 더불어 함께 다루어져야 할 문제임을 시사한다.
 - 특별잉여가치 :
 - 새로운 기술이나 노동방식 등을 도입하여 생산성 혁신 // 생산성 향상의 경제적 '인센티브'
 - 시장가치에서의 **비교에 의해** 획득되는 초과이윤의 일례
 - 차액지대처럼 이윤율 평균화에 들어가지 않는다.
- 인위적인 것이든 자연적인 것이든 독점은 초과이윤을 낳는다. 독점적 소유는 이윤율 평균화에 반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임. 생산수단의 사적소유는 일반적인 소유개념과 동일하다. 토지와 같은 특별한 생산수단이나 독점자본주의 같은 '특수한' 자본주의에 국한된 노리가 아니라, 자본주의에서 이윤 일반에 관한 논리이다.
- **초과이윤은 차액지대와 마찬가지로 비교함으로써 발생한다.**
- **절대이윤은 절대지대와 마찬가지로 독점함으로써 발생한다.**
 - 거대자본을 이용한 독점의 장벽. 독점적 소유

(2) 지대론과 초과이윤

- 지대론을 농업에서 발생하는 초과이윤의 해명으로 제한하면, 그것은 현실과 부합하지 않거나 아니면 지주가 자본가보다 막강하던 18세기 영구에나 해당되는 낡은 이론이 된다.
- 지대론에서 농업이라는 제한을 걷어내는 순간, 현재의 자본주의에 아주 잘 부합하는 현대적인 이론으로 변모한다. 평균화의 논리와 대비되는 초과이윤의 논리, 더 나아가 독점자본주의에서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이윤의 포획 메커니즘에 대한 해명을 담고 있다.**
- "**자연력의 독점적 사용에 의해서 초과이윤이 지대로 전환되는 것**"이라는 맑스의 언급은, 지대론에 사용되는 논리가 지대만이 아니라 초과이윤 일반에 관한 것임을 보여준다.

- **비교에 의한 포획 메커니즘 :**
 - 산출물의 결과를 양적으로 비교함으로써 양적 차이를 초과이윤으로 포획
 - == (**차액지대**)
- **독점적 소유에 의한 포획 메커니즘 :**
 - 독점적 소유라는 조건을 통해 소유의 대가를 초과이윤으로 포획
 - == (**절대지대**)

(3) 지대론과 정치경제학 비판

- 맑스의 비판 방식 :
 - 지대론의 전제가 이윤율 평균화의 전제(==고전파적전제)와 동일한 것임을 의미.
 생산양식의 필수조건들 - 예컨대 자본들 사이의 자유경쟁, 한 생산분야로부터 다른 생산분야로의 자본의 이동, 균등한 수준의 평균이윤 - 이 또한 완전히 전개되어 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
 - 맑스는 평균화의 가정을 전제하고는, 그 위에서 그것을 벗어나거나 그것에 반하는 메커니즘을 도출하고 있다.
 - 어떤 조건을 가정하고는 거기서 그 조건에 반하는 명제를 추론함으로써 이율배반을 드러내는 방법.
- 초과이윤 포획의 논리는 평균화에 반하여 초과이윤의 새로운 편차를 확대하려는 경향이 자본의 일반적인 경향, 기본적인 경향으로 존재함을 함축한다.
- 평균화는 다시 연기되고 거듭하여 연기된다.

(4) 지대와 자연

- '공기'나 '물'의 사용가치가 부를 형성하진 않는다. 사용가치가 경제학적 의미의 가치로 전환될 수 있을 때, 즉 **가치화될 수 있을 때** '불'라는 개념이 성립된다. => 맑스의 지대론은 자연 또한 노동만큼이나 가치의 원천이라는 명제를 함축한다.
- 차액지대는 불변자본이나 가변자본에 기인하는 부에 추가하여 자연이 생산한 가치를 표시하며, 자본이 자연을 착취/이용한 결과를 표시한다.(ex:차액지대 설명시 토지의 비옥도에 따른 상이한 결과) => **토지가 바로 지대라는 추가적 가치를 생산한 원인이란 것을 보여준다.**
- 이런 점에서 지대론은, 자연은 아무런 가치가 없으며 가치를 생산하지 않는다면 마구잡이로 착취했던 자본주의의 정치경제학에 대해 또 하나의 근본적 비판지점을 제공한다.